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말레이시아

Federation of Malaysia

2022년 10월 31일 | 선임조사역(G2) 김은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330천 km ² 	인구 33.1백만명 (2022 ^f)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연방형 의원내각제)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GDP 4,341억 달러 (2022 ^f) 	1인당GDP 13,108 달러 (2022 ^f) 	통화단위 Ringgit 	환율(U\$기준) 4.46 (2022 ^f) 

- 말레이시아는 13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그 중 11개 주는 말레이 반도 남부(서말레이시아)에 위치하며, 2개 주(Sabah, Sarawak)는 보르네오 섬 북서부(동말레이시아)에 위치하고 있음. 서말레이시아는 태국, 싱가포르와 인접해 있으며, 동말레이시아는 남쪽으로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말레이계 및 원주민(부미푸트라) 62%, 중국계 21%, 인도계 6%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교는 이슬람교이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 경제의 대부분을 중국계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부미푸트라 우대정책을 시행해 왔음.
- 원유, 천연가스, 천연고무, 팜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공업화에 성공한 상위 중소득국이며 금융업, 관광업 등 서비스업도 발달하여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음. 이에 더해 기업친화적인 제도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장기간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왔음.
- 여권 연합의 장기 집권으로 오랜 기간 정치적 안정을 누려왔으나, 1MDB 등 집권 여당의 부패 스캔들로 촉발된 정권 교체와 2018년 취임한 마하티르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2020년 2월) 이후 여·야간 합종연횡 및 이합집산으로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마일 야콥 현 총리는 의회 해산(2022년 10월 10일)과 조기 총선(2022년 11월 19일 예정)을 선언한 상황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0. 2. 23 수교 (북한과는 1973. 7. 2)

주요협정 무역협정('62), 항공협정('67), 이중과세방지협정('83), 과학기술협력협정('86), 투자보장협정('89), 자원협력양해각서('95), 형사사법공조조약('13), 범죄인인도조약('15)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출	8,843,499	9,078,150	10,107,328	선박구조물, 반도체, 석유제품(경유 등), 합성고무
수입	9,279,940	8,892,564	10,456,180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제품(중유 등), 컴퓨터

해외직접투자현황(2022년 6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998건, 6,851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e	2022 ^f
경제성장률	4.8	4.4	-5.5	3.1	5.4
소비자물가상승률	1.0	0.7	-1.1	2.5	3.2
재정수지/GDP	-2.6	-2.0	-4.6	-5.5	-4.9

자료: IMF, EIU

2021년 코로나19 봉쇄조치 완화,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3.1%의 플러스 경제성장 회복

- 말레이시아는 광물자원(원유, 천연가스, 주석), 농산자원(팜오일, 고무) 등 천연자원 부국으로서 동남아 지역 석유·가스 및 해양 플랜트 산업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도로·공항·항만·인터넷 등 발달된 인프라와 풍부한 영어 구사 인력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전기·전자 등 제조업 육성 등을 통해 장기간 꾸준한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72,795달러, 2021년 IMF), 브루나이(44,809달러) 다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임(11,399달러).
- 1980년대 초 이후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을 본받고자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수립하고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여 제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결과, 1980년대(1981~1990년) 및 1990년대(1991~200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각각 6.1%, 7.2%에 이를 정도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5.5%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 이후 백신 접종률 증가 및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3.1%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올해 말레이시아 경제는 민간 투자·소비가 회복되고 해외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5~6%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기·전자 산업의 업황 둔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 등에 따른 관광업 회복 지연 등에 따라 2023년에는 올해 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기관별 말레이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IMF ('22.10월)	ADB ('22.9월)	세계은행 ('22.6월)	EIU ('22.9월)	Fitch Solutions ('22.7월)	말레이시아 정부('22.9월)
2022년	5.4	6.0	5.5	6.0	5.2	6.5~7.0
2023년	4.4	4.7	4.5	4.0	3.8	4.0~5.0

국내경제

중앙은행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코자 2022년 5월부터 긴축 통화정책 기조로 전환

- 말레이시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10년(2012~2021년) 평균 1.79%(IMF)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에 따라 생산 중단과 민간 수요 감소 등을 경험한 2020년에는 -1.1%의 디플레이션을 기록하였음. 2021년에는 하반기 봉쇄조치 완화 및 이에 따른 경기 회복세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를 기록하였음.
- 한편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에너지 가격 상승 및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른 링깃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면서 3.2%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인접 신흥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 2022년 주요 신흥국 물가상승률 전망(IMF) : 필리핀 5.8%, 태국 6.3%, 베트남 3.8%, 인도 6.9%, 인도네시아 4.6%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책 지원을 위해 2020년에 4차례에 걸쳐 총 125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으나, 2022년 들어 본격화된 글로벌 물가상승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5·7·9월에 각각 25bp씩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현재 기준금리 2.50%) 11월에 한 차례 더 25bp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EIU).
 - * 2020년 기준금리 변동: 3.00% → 2.75%(1월) → 2.50%(3월) → 2.00%(5월) → 1.75%(7월)

주요국 대비 느린 통화긴축 기조로 링깃화 가치는 약세 추세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도국 시장에서의 대규모 자본 유출*로 2020년 3월 링깃화 가치는 2016년 이후 최저치인 미 달러당 4.445링깃까지 하락(2020.1.2.자 4.088링깃/달러 대비 8.7% 하락)하였으나, 이후 안정되면서 2020년 평균환율**은 미 달러당 4.20링깃을 기록하였음.
 - * VIX 지수(시장 변동성 지수) : 12.47(2020.1.2.) → 82.69(2020.3.16.) → 22.75(2020.12.31.)
 - ** 대미 평균환율(IMF) : 4.30(2017) → 4.04(2018) → 4.14(2019) → 4.20(2020) → 4.14(2021)
- 2021년에는 미 달러당 평균환율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4.14링깃(-1.4%)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는 선진국과의 금리 격차가 감소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느린 긴축 기조로 9월 말 현재 연초 대비 약 11.4% 상승한 상황임(4.65링깃/미 달러). EIU는 연중 평균환율을 4.45링깃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월평균수입액의 약 4.9배 수준의 외환보유액 규모(2021년 말 1,072억 달러) 감안 시 중앙은행의 환율 방어 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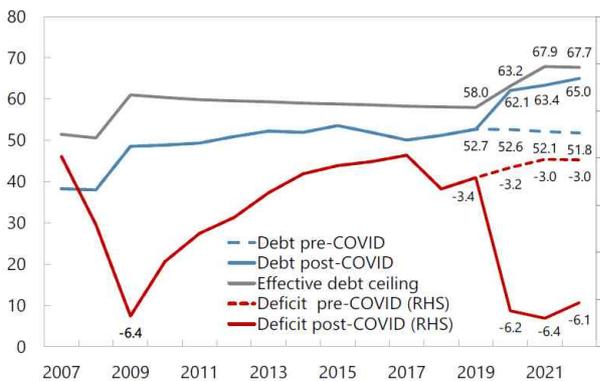
재정수입 감소와 경기부양책 확대로 재정건전성 악화

- 2020년 말레이시아의 재정수입은 봉쇄조치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원유 수출 수익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9% 감소한 반면, 재정지출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12.5% 증가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6%로 전년(-2.0%) 대비 악화되었으며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도 전년 54.4%에서 62.1%로 상승하였음.

*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IMF) : (2010~18년 평균) 54.4 → ('19) 54.4 → ('20) 62.1 → ('21^o) 63.4 → ('22^f) 65.0 → ('23^f) 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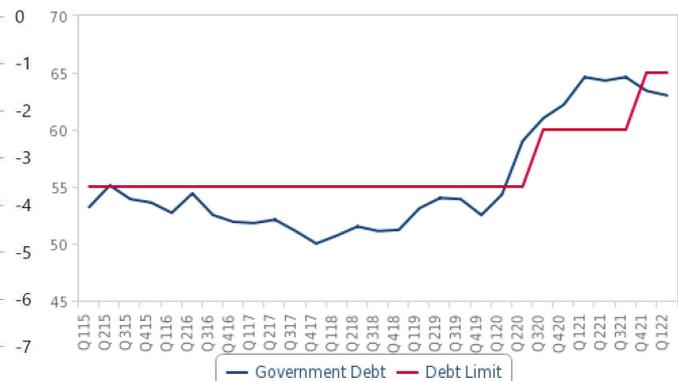
-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와 하원은 2020년 8월 및 2021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법률상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상한을 종전 55%에서 각각 60%, 65%로 상향 조정함.
- 2021년에도 전년과 유사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반면, 재정지출은 2.0% 증가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5%,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63.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1]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전후 GDP 대비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추이(%)



자료: IMF

[그림 2] 말레이시아의 GDP 대비 정부부채 및 부채 상한 추이(%)



자료: Fitch Solutions

-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2022년도 정부 예산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전년 대비 각각 5.9%, 3.6% 증가한 2,340억 링깃, 3,321억 링깃으로 설정한 바, 동 예산안은 금년도 경제성장률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각각 5.5~6.5% 및 -6.0%로 가정하고 산출된 수치임.
- 재정지출 중 사회 인프라 관련 지출(개발비)에는 전년 대비 21.9% 증가한 756억 링깃을 배정하였으며, 팬데믹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코로나19 기금 앞 지출에는 전년 대비 41.0% 감소한 230억 링깃을 배정하였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f
경 상 수 지	8,026	12,795	14,138	14,143	7,159
경상수지/GDP	2.2	3.5	4.2	3.8	1.7
상 품 수 지	28,426	30,123	32,829	41,127	33,912
상 품 수 출	205,655	197,272	186,062	235,730	264,392
상 품 수 입	177,230	167,150	153,233	194,603	230,480
외 환 보 유 액	97,788	99,467	102,642	107,184	96,414
총 외 채	183,568	193,675	196,841	214,826	232,701
총외채잔액/GDP	51.1	53.0	58.3	57.6	53.6
D.S.R.	10.6	10.9	13.6	10.7	10.7

자료: IMF, EIU, OECD

다변화된 수출품목을 바탕으로 경상수지 흑자 지속

- 대외거래를 위한 운송비 지출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와 외국인 근로자 해외 송금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나, 전기·전자제품, 원유, 천연가스, 팜유, 천연고무 등 다변화된 수출품목을 바탕으로 1996년부터 매년 안정적인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는 1998년부터 매년 흑자를 지속해 왔음.
- 2021년에는 상품수입 증가율 대비 상품수출 증가 폭이 커짐에 따라 흑자 폭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411억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 및 141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글로벌 공급망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전년 대비 감소하겠으나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EIU).
- 2022년 1분기 상품 수출 및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5.6% 및 17.2% 증가하였으며, 2분기에는 각각 15.1% 및 22.2% 증가하여 상품수지 흑자 폭의 감소 추세가 확인되고 있음.

구분(억 달러)	2017	2018	2019	2020	2021 ^o	2022 ^f
상 품 수 지	273	284	301	328	411	339
서 비 스 수 지	-53	-44	-26	-112	-147	-139
본 원 소 득 수 지	-90	-111	-95	-68	-100	-105
이 전 소 득 수 지	-40	-49	-52	-7	-23	-24

자료: IMF, EIU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인 수준 유지

- 2020년 말 기준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2020년 민간소비 위축에 따른 수입 감소로 인해 6.0개월분으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에는 4.9개월분으로 소폭 하락하였음. 2022년에는 수입물가가 상승하는 반면 외환보유액은 약 964억 달러(EIU 추정)로 소폭 감소하여 월평균수입액 대비 배수도 3.9개월분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 : 45.9(2017) → 59.6(2018) → 57.6(2019) → 48.6(2020) → 49.4(2021)

**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개월) : 5.3(2017) → 4.7(2018) → 5.1(2019) → 6.0(2020) → 4.9(2021)

외채잔액은 증가 추세이나, 외채상환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

- 외채잔액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최근 수년 간 50%대를 유지하여 왔음. 한편 외채의 70% 이상이 중장기 채무로 만기구조가 안정적이며 공공외채의 90% 가량이 현 지통화 표시 부채로서 외부충격에 따른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IMF). 2021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49.4%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GDP 규모가 감소(3,653억 달러 → 3,376억 달러)하고 팬데믹 대응 등을 위한 차입이 증가한 결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58.3%로 상승하였으며, 2021년에는 소폭 하락한 57.6%를 기록하였음.
- 2019년 원자재 수출 부진, 2020년 글로벌 교역 감소 등의 여파로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및 D.S.R. 지표가 최근 2년(2019~20년) 연속 악화되었으나, 2021년에는 교역조건 개선 등에 힘입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2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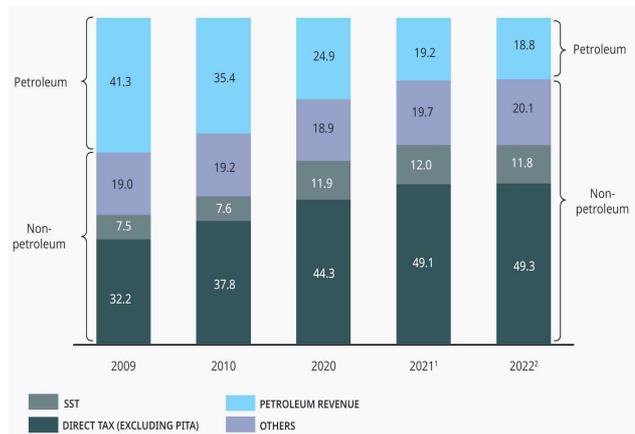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e	2022 ^f
외채원리금상환액(억 달러)	330.5	275.7	276.1	299.8	300.3	323.0
D.S.R.(%)	14.0	10.6	10.9	13.6	10.7	10.7
총외채잔액/총수출(%)	75.0	70.4	76.2	89.1	76.7	76.8

구조적취약성

원유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말레이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순수출국으로 에너지 국제가격 변동이 경상수지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재정수입의 약 20%를 원유 관련 수익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이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 여력을 좌우함.
- 2021년 이후 국제유가의 반등은 정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직접세(Direct Tax) 확충 등을 통해 재정 기반을 다변화하고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림 3] 말레이시아의 재정수입에서 원유 관련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자료: 말레이시아 재무부

인근 ASEAN 경쟁국 대비 작은 내수시장

- 말레이시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나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인구가 적어 (3,387만 명, CIA 2022년 추정) 경제규모 확대 효과가 반감되는 면이 있으며, 특히 ASEAN-5 국가(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중 인구가 가장 적어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2.8억 명), 필리핀(1.1억 명), 베트남(1억 명), 태국(7천만 명, 이상 CIA) 등 인근 주요국들의 인구 규모는 말레이시아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합계 출산율(명)(2020년, WorldBank) : 말레이시아 2.0, 인도네시아 2.3, 필리핀 2.5, 베트남 2.0, 태국 1.5

- 또한, GDP 대비 수출입액 비중*도 인근 주요국 대비 높은 편에 속하며, 세계 경기 변동과 연관성이 높은 반도체 및 IT 관련 제품과 광물자원 등이 주력 수출품목으로 대외충격에 취약한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수출액+수입액)/GDP(2021년) : 말레이시아 145.9%, 인도네시아 43.0%, 필리핀 59.6%, 베트남 190.1%, 태국 125.6%

성장잠재력

원유, 천연가스, 천연고무 등 풍부한 자원 보유

- 국토의 5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천연고무(세계 7위)와 팜유(2위)가 풍부하게 생산되어 세계 주요 수출국임. 또한, 원유, 천연가스, 주석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여 에너지 및 자원 개발 잠재력이 풍부함.
-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2위의 팜유(palm oil) 생산국으로, 2020년 기준 전 세계 팜유 수출량의 34.3%를 차지하고 있음. 팜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용 기름으로, 식품 외에도 화장품 및 바이오디젤의 주원료로 주목을 받으며 외국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원유 생산량은 2021년 기준 1일 57.3천 배럴로 전 세계 생산량의 0.7%, 매장량은 2020년 기준 27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0.6%에 해당해 절대 보유량은 많지 않으나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중에서는 4위(중국-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順)의 원유 순수출국임.
- 천연가스의 경우 2021년 기준 일평균 생산량은 742억 m³로 전 세계 생산량의 1.8%를 차지하며(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중 10위) 2020년 기준 매장량은 0.9조 m³로 전 세계 매장량의 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BP Statistical Review).

다변화된 산업 포트폴리오 보유

- 말레이시아 경제는 2020년 기준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상품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제조업이 주요 성장동력인 동시에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팜유, 천연고무 등 농업 부문의 생산과 수출 경쟁력도 양호함. 아울러 원유, 주석 등 천연자원이 풍부해 광업도 발전하여 전 산업 부문에 걸쳐 다변화된 산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음.

* 2020년 GDP 구성 비중: 서비스업 57.7%, 제조업 22.9%, 농업 7.4%, 광업 6.8%, 건설업 4.7%

정책성과

기업친화적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여 기업경영여건 양호

- 말레이시아의 사법 제도는 영국 보통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고 국제투자 분쟁조정기구(ICSID)를 통한 국제분쟁 조정을 허용하는 등 상업 문제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됨. 정부가 외국인 자산을 몰수한 전례가 없고,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과 제도를 장기간 지속하여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기업경영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평가대상 141개국 중 27위의 양호한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공공 부문 규제 및 효율성 부문 8위, 재산권 부문 14위, 기업 운영 부문 5위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정부 규제, 권리 보호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기업의 자금 조달, 자유로운 과실송금 보장 등 제반 기업경영여건이 양호하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경영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2019년 10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기업경영여건 순위는 190개국 중 12위로 매우 양호함.

장기 국가발전전략의 토대가 될 '공동번영 비전 2030' 추진

- 말레이시아는 1970~90년 신경제정책(NEP), 1991~2000년 국가개발정책(NDP), 2001~10년 국가비전정책(NVP), 2011~20년 경제변화프로그램(ETP) 등 정부 주도의 10년 주기(장기) 및 5년 주기(중기) 경제계획 개발 정책을 추진해 왔음. 이를 통해 자원 수출과 농업 생산에 의존하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전기·전자 산업과 함께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제조업 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
- 2019년 10월 5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향후 10년 간 국가발전 전략의 토대가 될 '공동번영 비전 2030'(Shared Prosperity Vision 2030)을 발표하였음. 공동번영 비전 2030은 '모두를 위한 발전', '빈부격차 해소', '단결되고 번영하는 국가 건설'이라는 3개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10개의 핵심 경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음.

10대 핵심 성과지표(주말레이시아 대사관)

항 목	내 용	항 목	내 용
명목 GDP	3조 4,000억 링깃	인종별 상대적 가계소득	부미푸트라:중국:인도=0.9:1:1 (현재) 부미푸트라:중국:인도=0.72:0.82:1
중소·영세기업의 GDP 기여도	50%	인종별 상대적 임금수준	부미푸트라:중국:인도=1:1:1 (현재) 부미푸트라:중국:인도=0.84:0.83:1
소득 하위 40% 이하 계층의 월평균 소득	5,800링깃	지역별 상대적 경제규모	북부:동부:중부:남부:사바:사라왁=1.6:2.0:1.0:1.4:1.5:1.2 (현재) 2.1:2.7:1.0:1.7:2.6:1.3
GDP 대비 피고용자 보수 비중	48% (2018년 35.7%)	인종별 1인당 금융자산 상대적 보유규모	부미푸트라:중국=0.6:1, 인도:중국=0.8:1 (현재) 부미푸트라:중국=0.5:1, 인도:중국=0.7:1
부미푸트라 기업의 국민소득 기여도	20%	지니계수	0.34

- 7개의 전략적 추진분야를 설정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 목표를 수립한 바, 중소기업의 경제기여도 확대, 첨단산업 비중 확대, 고속련 노동자 양성, 차별 없는 노동시장 조성, 지역 간 소득격차 축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정책성과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12th Malaysia Plan) 수립

- 2021년 9월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는 '공동번영 비전 2030'의 첫 청사진에 해당하는 12차 말레이시아 계획(2021~25년)을 하원에 제출하였음. 총 4,000억 링깃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동 계획은 연 4.5~5.5%의 경제성장률, 가계별 평균 월소득 약 1만 링깃 등을 달성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기회 및 결과의 공평한 분배 달성을 위해 9개 중점 추진 분야를 설정하였음.
- 직전의 제11차 계획과 비교했을 때 두 계획 모두 경제성장, 복지, 녹색성장, 포용성, 빈곤 해소, 복지 개선 등을 목표로 설정한 면에서는 유사함. 제12차 계획은 사바, 사라왁 지역 등에 대한 인프라 집중, 디지털 경제 강조,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등에 있어서 직전 계획보다 실행 방법이 구체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한편, 부미푸트라 관련 정책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주말레이시아 대사관).

제12차 계획의 중점 추진 분야

1. 경제성장 활성화(Revitalising Economic Growth)
2. 경제성장 요인 강화(Strengthening Growth Enablers)
3. 말레이시아 국민의 복지 개선(Increasing the Wellbeing of Keluarga Malaysia)
4. 보안 및 공공 안전 강화(Enhancing Security and Public Safety)
5. 극심한 빈곤의 퇴치와 소득격차 해소(Eradicating Hardcore Poverty and Narrowing Income Gaps)
6. 부미푸트라 정책 및 기타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 강화(Enhancing the Bumiputera Agenda and Keluarga Malaysia)
7. Sabah, Sarawak 및 여타 저개발 주 개발 촉진(Boosting Development in Sabah, Sarawak and Less Developed States)
8. 녹색성장 촉진(Advancing Green Growth)
9.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제고 및 효과적인 정책 추진 보장(Increasing the Efficiency of Public Service Delivery and Ensuring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정치안정

여당연합의 의회 장악력 부족 및 내부 갈등으로 정치적 불안 계속

- 말레이시아는 영국 식민지의 유산으로 국왕과 더불어 상·하원 양원이 존재하는 입헌군주제 국가이자 연방 의회와 주 의회가 별도로 존재하는 연방제 국가임. 국가원수로서 왕의 임기는 5년이며 9개 주의 술탄(Sultan)이 교대로 선출되고, 형식적으로 총리와 내각을 임명할 권리를 가지며 군대 최고 사령관으로서 통솔권을 가지고 있음. 실질적 권한이 크지 않은 상원(임기 3년)은 총 70명으로 구성되며, 26명은 13개의 주 의회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44명은 총리의 제안에 따라 국왕이 임명함. 하원(임기 5년)은 소선거구제 형태로 전국적으로 222명을 선출하며, 원내 다수당(연합)의 당수가 총리로서 실권을 행사함.
- 통합말레이국민조직당(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UMNO) 중심의 다수 정당 연합인 국민전선(Barisan Nasional, BN)은 말레이시아가 독립한 1957년부터 2018년까지 60년이 넘게 장기집권을 유지해 왔음. 특히,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마하티르’) 총리는 1981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22년 간 UMNO의 대표로서 최장기 집권하면서 1988년부터 10여년 간 연평균 9%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산업화를 이루었으며, 1997년 동남아 외환 위기 시 외국인 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 시행과 IMF의 긴축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음.
- 마하티르 총리는 2003년 퇴임 후에도 UMNO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오다 2015년 전후에 불거진 나집 라작 당시 총리의 1MDB 부패 사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면서 당에서 축출되었음. 이에 그는 통일원주민당(PPBM)이라는 신당을 창당하고 당시 야당인 민주행동당(DAP), 인민정의당(PKR) 등과 손잡고 야권 연대인 희망연대(PH)를 구성하여 2018년 총선에서 본인이 과거 총리로서 이끌었던 BN연합을 큰 표 차이(PH 113석, BN 79석)로 따돌리고 61년만에 92세의 나이로 정권을 교체하였음.
- * 나집 라작 전총리가 2009년 설립한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1MDB의 조성 및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세탁 및 횡령 사건. 미국 법무부는 국내 자금세탁 관련 수사에서 나집 전 총리가 45억 달러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은 1MDB에서 유출된 자금 가운데 7억 달러 상당이 나집 전 총리의 개인 계좌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면서 나집 전 총리에 대해 40여개 혐의로 기소하고 5건의 재판에 회부하였음. 2022년 8월 23일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은 그 중 한 건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2억 1천만 링깃(46백만 달러 상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나집 전 총리를 법정 구속하였음.
- 집권 3년 차인 2020년에 희망연대 소속의 PKR당 대표에게 총리직을 양보하기로 한 마하티르는 당시 야당연합인 BN 등과 손잡고 새로운 거국 내각을 구성하여 새롭게 총리에 오르려는 의도로 돌연 총리직을 사임함. 한편 혼란스러운 이합집산, 합종연횡의 정국 속에서 마하티르와 함께 PPBM을 창당한 무히딘 야신은 PPBM을 PH로부터 탈퇴시킨 후 UMNO 및 BN 세력과 손잡고 국민연합(PN)을 구성하여 총리에 오르게 됨.
- 그러나 야신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미숙함을 보임에 따라 민심이 이반되고 내각의 대다수를 PPBM 출신만으로 구성함으로써 UMNO 소속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잃게 되자 2021년 8월 총리직을 사임함. 야신 전 총리 집권 당시 국방장관 및 부총리 중 하나였던 UMNO 소속 이스마일 야콥은 당내 경쟁에서 승리하고 BN 소속 의원 포함 총 114석을 확보하여 총리에 오르게 됨. 이와 함께 소속 정당인 UMNO는 2018년 총선 패배 후 3년 만에 다시 집권 여당으로 복귀하였음.

정치안정

- 정치적 혼란에 따른 민심을 달래기 위해 2022년 7월 하원에서는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당적변경금지법'이 통과되었음. 다만, 이는 정당 전체 구성원들의 여·야 연합에 대한 지지와 이의 철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여·야 연합간 합종연횡과 이에 따른 혼란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10월 10일 이스마일 야콥 총리는 조기 총선을 위해 현 의회를 해산한다고 밝힘. 현 여당 연합의 집권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었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기 총선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내년 7월 6일로 예정되었던 총선은 11월 19일에 치러질 예정임(법상 의회 해산 후 60일 이내).
- 한편 EIU에서 평가한 말레이시아의 민주주의지수(2021년)는 167개국 중 39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뉴질랜드, 대만, 호주, 한국, 일본(이상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평가점수(7.24점/10점)상으로는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분류*되었으며, 선거 절차(9.58점), 정부 기능(7.86점)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치 문화(6.25), 시민의 자유도(5.29)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음**.

* 말레이시아 다음으로는 동티모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싱가포르 順

** 선거 절차,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

사회안정

부미푸트라(말레이계 및 원주민)에 대한 우대정책 강화

- 말레이시아의 민족 구성은 말레이계 및 원주민을 통칭하는 부미푸트라(62%)와 중국계(21%) 및 인도계(6%) 이주민으로 이루어져 있음.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중국계가 경제를 장악하여 말레이계의 사회·경제적 영향력과 기반이 매우 취약하였음.
- 1969년 5월 10일 총선에서 말레이계·인도계·중국계 기반 민족정당 3당이 연합한 여당연합이 부진한 성과를 내자 그간 누적된 민족 간 갈등이 표출되며 말레이계와 중국계 주민 간 충돌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5월 13일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당시 총리는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나 사태 해결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듬해 사임하였으며, 정부는 말레이계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취약한 것이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1971년부터 부미푸트라 우대정책을 실시해 왔음.
- 부미푸트라 우대정책은 대학교 입학 특별전형 실시 및 학비 할인, 기업이나 관공서 신규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의 부미푸트라 직원 고용 의무, 기업 상장 시 지분의 12.5% 이상을 부미푸트라 투자자에 할당, 택지 개발시 입주 물량의 30% 부미푸트라 앞 할당 및 특별 할인 제공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부미푸트라에 특혜를 주고 있음. 이러한 우대정책은 말레이계의 교육과 소득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민족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경제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도 있음.
- 인도계와 중국계 주민들은 부미푸트라 우대정책이 도입되던 때에 비해 말레이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됐는데도 우대정책이 계속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 일부 말레이계 주민들은 보다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요구하는 상황임. 2018년 정부가 인종, 피부색, 가문, 민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UN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비준을 준비하고 부미푸트라 우대정책 축소 움직임을 보이자 격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져 ICERD 비준이 무산된 바 있음.
- 2020년 7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미푸트라 우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부미푸트라 번영 위원회(Bumiputera Prosperity Council)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21년 5월 야신 총리 주재 하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음. 동 위원회는 '공동번영 비전 2030'의 일부로, 부미푸트라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음.
- 부미푸트라가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여당연합 내 양대 정당인 PPBM과 UMNO가 모두 親말레이계 정당을 표방하고 있어 부미푸트라 우대 정책은 앞으로도 유지 및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예방조치 지속

- 말레이시아에서는 2016년 6월 이슬람국가(IS)가 자행한 쿠알라룸푸르 나이트클럽 폭탄 테러 사건(8명 부상) 이후 IS 관련자들에 대한 관리 및 체포 활동을 지속하는 등 극단적 이슬람주의자에 의한 테러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그 뒤 추가적인 테러 사건은 발생한 바 없음.
- 말레이시아 경찰은 2019년 7~9월 중 IS의 영향을 받아 정치인 등을 상대로 테러를 계획한 16명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체포한 바 있으며, 정부는 IS 가입을 목적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에 다녀온 것으로 추정되는 100명 이상의 말레이시아 국적자를 추적 관리하고 있음.

사회안정

시위·소요 사태가 드물고 사회적 안정성이 높으나, 노동자의 권리는 취약한 편

- 말레이시아에서 시위 발생 빈도는 매우 낮으며, 폭력적인 소요 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대부분의 시위는 야당 측이 정부의 종교·민족 정책을 문제삼아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도 지정된 광장이나 경기장에서 비폭력적으로 진행됨.
- 엄격한 노동 규제로 노조의 동정파업과 불법 해고 관련 분쟁에 대한 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파업 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매우 엄격하여 합법적인 파업이 거의 불가능함. 또한 노동부가 근거 없이 노조 설립을 불허할 수 있는 등 노조 설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노동자에 의한 파업이나 시위는 매우 드물게 발생함. 말레이시아 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6%만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최상위권으로 평가

- 2021년 6월 Moody's는 ESG 요소가 말레이시아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라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2등급(Neutral-to-Low)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Moody's(2021. 11월)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요소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세계적인 화석연료 사용 축소 움직임에 따라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원유 관련 수입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광업, 벌목 및 팜유 농장 확장에 따른 산림 파괴에도 노출되어 있어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양질의 교육, 주택, 보건 및 기본 서비스 접근성이 양호하고 소득 하위 40%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미푸트라 우대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상당 부분 상쇄하여 사회(Social) 영향은 중립적(2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견고한 행정 및 입법 제도, 신뢰할 수 있는 법치주의, 오랜 기간 지속된 효율적인 거시경제 정책 등에 기반하여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은 긍정적(1등급)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교역시장 확대

- 비동맹 중립정책과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구하며 일본, 인도, 파키스탄 등 총 7개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고 ASEAN 차원의 다자간 FTA에도 가입하였으며,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및 OIC(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이슬람협력기구, 총 57개국]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대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바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TPP의 대안으로 일본을 주축으로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와 한·중·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출범된 바 있음.
 - * 참여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칠레, 페루, 멕시코, 캐나다
 - ** 참여국: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1년 10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한편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동맹체계의 구축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공식 제안하였으며, 인도를 비롯하여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7개국*과 남태평양의 피지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임.
 - *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 말레이시아는 동말레이시아 인근의 남중국해 루크니아 암초 지대를 중심으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2020년 5월 말레이시아 감사원은 2016~19년 중 중국 해안 경비대와 해군 선박이 총 89차례에 걸쳐 남중국해의 말레이시아 영해를 침범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2021년 6월에는 중국 군용기 16대가 동말레이시아 인근 영공을 편대 비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다만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최대 교역국으로, 남중국해 분쟁 관련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낮으며 말레이시아는 외교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음.

[그림 4]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도



국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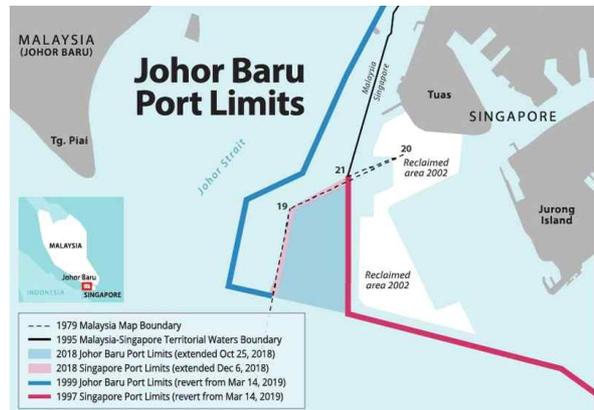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암발라트 해역 등에서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2005년 해당 분쟁 해역에서 원유가 발견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양국은 모두 암발라트 해역에 해군을 파견하였음. 양국 모두 암발라트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자원 탐사를 지속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로는 군사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채 현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양국 사이에 위치한 조호르 해협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지속해왔으며, 2018년 10월 말레이시아가 조호르 해협 인근 조호르 바루 항의 포트 리밋(Port Limit, 선박 운항 등 관할권 행사 구역)을 일방적으로 확장하자 싱가포르는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며 같은 해 12월 인근 투아스 항의 포트 리밋을 확장하는 조치로 대응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의 상선 운항이 제한될 위험이 높아졌으나,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그림 5] 암발라트 해역 분쟁지역 지도



자료: Jakarta Post

[그림 6] 조호르 해협 분쟁지역 지도



자료: Malay Mail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금액 없으며 외채상환태도 양호

- 2021년 3월 말 기준 말레이시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총 지원액은 65.8억 달러(단기 20.5억 달러, 중장기 45.3억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미미한 수준(15백만 달러, 연체율 0.23%)으로 채무상환태도가 양호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2022.06)	2등급(2021.06)
Moody's	A3 (2021.01)	A3 (2018.12)
Fitch	BBB+ (2022.02)	BBB+ (2021.04)

양호한 투자적격등급을 유지 중이나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말레이시아는 재정적자 지속, 재정수입 기반 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 이력,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건전한 금융 부문과 신뢰성 있는 규제 등에 힘입어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양호한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수년째 유지해 왔음.
- Fitch는 2020년 4월 말레이시아에 대한 등급 전망을 '부정적(A-, Negative)'으로 조정한 후 동년 12월에는 코로나19가 말레이시아 경제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쳤고 이미 높은 수준인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계속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책대응 능력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의 평가등급을 종전 A-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 말레이시아 경제는 다변화된 산업구조, 풍부한 부존자원, 시장친화적인 제도 구축 등에 힘입어 2010년 이후 꾸준히 연간 4~7%대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해왔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봉쇄 조치, 유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5.5%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2021년에는 하반기부터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3.1%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며, 금년에는 작년보다 높은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역사적인 여·야 정권 교체 이후 2020년 마하티르 전 총리의 사임으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은 정부의 미흡한 코로나19 대응, 여당연합 내 세력 다툼 등으로 인해 심화되었음. 2021년 8월 여당연합의 UMNO 소속 이스마일 야콥이 총리로 취임하며 정치적 혼란이 일단락되었으나, 2022년 10월 10일 이스마일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선언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계는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이후 총외채규모가 외환보유액을 초과한 상태이나, 70% 이상이 중장기 외채로 구성되어 만기 구조가 안정적이며 대외거래가 활발하여 2021년 기준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중 76.6%, D.S.R 10.7% 등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은 낮은 편임.